

잡아함 16. 증제수경

날짜: 10월 30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542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왔다. ……(그가 물은 내용은 앞의 경에서 말한 것과 같고, 다만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.) “번뇌[使]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모든 수(數)를 증가시킨다. 만일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모든 수를 증가시키지 않느니라.”

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너는 내가 간략히 설명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 ? ”

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.

“세존이시여, 만일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진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, 번뇌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그는 곧 모든 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수 · 상 · 행 · 식이 번뇌를 따른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을 것이요, 번뇌를 따라 부려져 그 번뇌를 따라 죽는다면 그는 곧 모든 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.

세존이시여, 만일 색이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,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수 · 상 · 행 · 식이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, 번뇌를 따라 부려지지 않아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.

이와 같이 세존이시여, 저는 세존께서 간략히 설명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.”

이렇게 하여……(내지)……그는 아라한이 되어 마음이 해탈하였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